

방글라데시 紀行文

金 命 鎬

延世醫大 教授 · 醫博 · 當協會理事

(1) 우리와 비교해서 볼 때

몇해동안 수없이 외국여행을 해보고 항상 우리가 사는 것과 외국인의 생활과 비교해 보게 된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나 비슷한 사람들, 또 우리보다 잘못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는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이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ঢাকা(Dacca)에 도착해서 첫째 눈에 띄는 것이 거지, 까마귀, 인력거인가 하면 그 많은 사람 중 깊이 살펴보면 빈곤, 문맹 질병으로 억눌리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다. 똑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랑과 우정이 솟아오른다.

(2)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는 식민지생활이 어떤 것인가? 체험을 해 보았기에 잘 안다. 이곳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1765년부터 1947년 파키스탄으로서 독립할 때까지 2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영국식민지로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든 식민지생활을 해왔다.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1206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힌두교를 신봉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계급차별이 심한 힌두교로부터 비교적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구미에 알맞는 서민적이고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모스렘교를 대부분(90%)의 국민이 오늘날까지 신봉하고 있다. 즉 1206~1765년까지를 모스렘교시대라고 말한다면 1765~1947년에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가 전도되었고 1947~1971년까지는 동부파키스탄 즉 파키스탄국의 일부분으로 지냈다. 1971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독립되었으나 최근 3차의 군

사혁명을 거쳤다. 현재는 계엄령하에 있고 계엄 행정관으로 국정의 전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알 라만(Ziaur Rahman) 장군이 사이야만(Seyem)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식민지생활에 겹치는 군사혁명을 거쳐서 복잡하고 비관적인 생활환경하에 있는 이 나라 국민은 최근까지 親蘇, 親印으로부터 親西方, 親中共의 국책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짧은 라만대통령 영도하에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의욕과 강한 국가건설에 국민 모두가 힘쓰고 있는 것이 엿보였다.

(3) 심각한 문제는 산적된 채 있다

빈곤을 극복하는 문제 첫째로 꼽을 수 있다. 국민소득 개인당 80불(어떤 자료에서는 \$95)이던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수도 ঢাকা에서(인구 200만명) 보더라도 약 1/5에 해당하는 시민은 벌거벗고 다닌다. 즉 걸레같은 한 점의 옷 아니면 땀츠 한 장 걸치고 있다. 약 1/4의 시민은 맨발이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에 나가보면 더욱 심하다. 워낙 식량이 부족해서 거지가 많다. 연간 소요식량은 1,100만톤인데 생산되는 것은 900만톤밖에 안된다. 따라서 200만톤이 부족하여 사모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농지가 경작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관개시설이 안되고 지하수개발도 안돼서 그렇겠지만 워낙 게을러서 그런다 한다. 따라서 평상시의 거지수만해도 보사부 또는 구호 및 부흥부에 등록된 것이 20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직업적 거지라고 하고 매년 십십치 않게 기습해오는 태풍이나 홍수 때문에 소위 계절적 거지라고 해서 20~30만명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이 숫자

는 유동적이다. 아열대 또는 열대지방이니 의식주생활에서 의생활이나 주생활은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농촌은 말할 수 없고 도시에서도 비참할 정도의 거처를 흔히 본다. 4만명내외의 거처 또는 난민 집단수용소를 방문했을 때는 눈물없는 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최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난경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스와니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취로시켜서 농지를 개척해 부족식량 200만톤에서 벌써 50만톤을 해결하고 있다.

다음은 文盲人口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향학열도 높고 학교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동남아여행을 해보면 알수 있다. 1975년도에서 보면 국민학교 취학을 53%밖에 안된다. 1976년도에는 이것이 73%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저조한 취학율에 덧붙여서 입학 후 2학년까지 중퇴하는 아동이 약 45%이고 5학년까지는 이것이 70%로 늘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약 20%의 주민이, 또 농촌에서는 5~10%의 주민만이 독해력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맹인구는 약 82%의 고율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높은 문맹률은 국가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제 3의 문제는 질병이다. 너무나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급수(給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도시에 있어서의 상수도도 신빙성이 약하다. 전문적인 전지에서 보면 수도물도 혼탁하고 또 세균의 검출도 의심스럽다. 외국인이 이곳 수도물을 먹고 의례히 설사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농촌에 있어서는 급수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상수도가 있는 농촌은 많지 않고 우물도 충분하지 못하다. 또 설사 우물물이 있어도 하천수를 먹기를 좋아 한다. 더러운 웅덩이에서 복욕하고, 양치질하고, 물을 길러다가 취사용으로 쓰는가 하면 용변 후 뒤뉘는 일까지 동일한 웅덩이에서 한다. 그래서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수인성 전염병이다. 예를 들면 5세미만의 어

린이의 약 20%는 만성설사증에 걸려 있고 콜레라는 근절시켰다. 하지만 이질이나 장티푸스를 흔히 볼 수 있다.

도시 하수도시설의 미비, 농촌에 있어서의 오물 처리의 비위생, 거기에 용변후 휴지를 쓰지 않고 왼손으로 뒤를 닦는 습관,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쓰지 않고 바른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는 습관 등은 이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병과 많은 관계가 있다.

식량부족의 탓이겠지만 영양실조가 이렇게 심각한 곳도 없을 것이다. 영양실조의 다음에는 기아(飢餓) 그것이 사망으로 끝맺게 된다. 이러한 3단계는 많은 어린이가 죽어갈 때 취하는 절차라고도 말할 수 있다. 5세미만의 어린이의 60%가 빈혈인가 하면 15세이하의 어린이의 95%가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失明이다. 장님이 약 30만명이고 이들은 대부분이 천연두나 비타민 결핍으로 왔다고 한다.

질병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340만명의 결핵환자, 20만명의 나병환자, 100만명의 말라리아환자, 국민의 95%에 해당하는 기생충병환자 등 일일이 예를 들기 힘들다.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격증하고 있는 인구이다. 많이 나서 많이 죽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인구증가 현상이다. 자연증가율은 3%나 되니 매년 240만명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많기로는 세계 제 8위이고 인구밀도는 평방키로미터당 584명으로 세계 제 1위를 점하고 있다. 아이를 나서 1년미만에 아이가 죽는 경우(영아사망)는 1,000명 출생당 148명(우리나라는 30명, 서구나 일본은 15명)이고 5세까지에 26%의 어린이가 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이 나라의 보건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4) 악조건과 싸우는 국민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역경에서 벗어나서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먼 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것이 결단코 하나의 꿈에 지나지는 않

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의 자각이다. 잘 살아 불려는 의욕, 정신차린 생활, 검소와 절제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이 요구되고 있다. 종교와 습관이 생활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도 많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많은데 모스렘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가, 우선 농사철에 바쁘다고 어린이를 국민학교로부터 중퇴를 시킨다는가, 손가락으로 직접 식사를 한다는가, 또는 가장 심한 것은 용변 후 손가락으로 뒤통을 닦는다는가, 이런 짓을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정치만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믿어진다. 특히 인구문제는 현재는 자연증가율이 3%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같은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어 멀지 않아서 증가율은 2%로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인구 및 가족계획장관인 이브라 임박사를 만났을 때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조직망, 소요예산 등 설명을 통하여 이 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히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보건 및 의료요원에 있어서도 대폭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인구 8,000만명에 의사는 겨우 5~6,000명, 간호원은 단지 700명, 약사 170명, 치과 의사 74명이다. 1978년 이 나라에서의 제 1차 5개년계획의 최종년도까지 최소한도의 요원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즉 8개 의과대학에서 한 반에 50명의 의과대학 학년별 학생수를 200명으로 늘려서 교육하고 있는가 하면 19개 간호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을 잘못 지키며 비교적 게으른 이 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놓고 있는 땅을 농작물을 심어서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다행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공업을 발전시킨다면 이 나라가 후진성을 탈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5)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방글라데시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자는 원유, 식유, 시멘트, 식량, 비료, 공업기계류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시멘트, 비료, 의류 등은 염가로 할 수 있다. 현재 쌍

용시멘트가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의약품은 보면 주로 영국제나 서독제 또는 일본제를 쓰고 있으나 가격 면에서 우리의 약품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진료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약품을 소개한 것은 뜻이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또 벌거벗고 다니기 때문에 고무신(또는 슬립퍼)이나 여름 의복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인력거의 타이어는 어느 나라 제품을 쓰고 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으나(일제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곳에는 우리 교포가 30여명이 살고 있어 고려산업사에서는 고속도로를 닦는다는가, 또는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각 방면의 건설업자도 인력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를 보아도 동남아시아보다는 가까운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또 그곳에 우리나라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노동력이 풍부하여 노임이 워낙 싸기 때문에 공장경영에는 유리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병원이 필요하다. 우리 의료진영으로 50~100 병상정도의 병원을 건설하여 우리 의약품으로 우리 진료진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면 한다.

빈약한 교육시설, 낮은 교육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도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언어문제가 있으나 얼마간의 훈련을 거치면 이 나라의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요구되는 교사를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혁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모스렘 국가를 기독교 국가나 기타 종교국가로 개종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선교의 좋은 대상국이 바로 방글라데시일 것이다. 이들이 속히 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단순한 정신혁명보다 어떤 신앙적인 강력한 지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한국선교사를 그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로부터 이러한 지원과 동시에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분야의 연구 등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아시아에서의 잘 사는 나라의 구실을 다 해야 하겠다.